WP "아직 '기생충' 못 봤다면 바로 나가서 봐라"

▲ '기생충'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시상식 후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한국영화 '기생충' 이 미국 아카데미영화 시상식을 사실상 석권한 가운데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다면 당장 나가서 보라" 고 권했다.

1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WP는 전날 "기생충의 미국 박스오피스 실적은 단지 3천500만 달러" 라며 "국제영화로서 인상적이지만, 많은 미국인이 아직 보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기생충' 수상 소식을 접하고도 그 영화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언짢아하지는 않아도 된다." 면서 "바로 나가서 영화를 보기를 권한다." 고 덧붙였다.

WP는 역사를 만들어낸 '기생충' 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서 '살인의 추억' , '설국열차' 를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과거 작품, 미국 평단의 호평, 작품상 수상의 의미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일종의 '기생충 현상' 을 만들어냈다고 극찬했다.

WP는 "영화를 관람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날수록, 미국인 관객들을 위해 온라인에선 한국 문화에 대한 언급이 확산하고 있다." 면서 "라면과 우동을 합친 '람동(ramdong)' 으로 번역된 '짜파구리'(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끓인 라면)가 중요 장면에 등장했고, 온라인에는 한국 음식 조리법이 갑작스럽게 쏟아졌다." 고 전했다.

한편 기생충은 지난 9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극장(Dolby Theatre)에서 개최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등 4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트와이스 도쿄돔 2회 공연 입장권, 발매 3분 만에 매진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 도쿄돔 콘서트 입장권이 예매를 시작한 지 3분 만에 매진되며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다.

1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월드투어 '트와이스라이츠' (TWICELIGHTS) 일환으로 다음 달 3~4일 도쿄돔에서 여는 콘서트 티켓이 지난 9일 예매 페이지가 열린 지 약 3분 만에 모두 팔렸다. 지난해 트와이스는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단기간인 데뷔 21개월 만에 도쿄돔에 입성한 바 있다. 도쿄돔은 수용 관객이 약 5만5천 명에 달하는 곳으로, 일본에 진출한 해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 가수에게도 상징적인 곳이다.

트와이스는 일본 대표 차트인 오리콘 차트 '2019 연간 아티스트 토털 세일즈 랭킹' 부문에서 K팝 가수 중 가장 높은 4위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5일 일본에서 발매한 새 앨범 '앤드 트와이스 –리패키지–' (&TWICE –Repackage) 와 신곡 '스윙' (SWING) 역시 지난주 라인 뮤직 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한편 지난 1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동명 공연에서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멤버 미나가 도쿄돔 공연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거리이다. 지난 12일 소속사는 "미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다. 앞으로도 본인 상태를 잘 살펴 활동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주한미군장성 "한국 도착 전 '미스터 선샤인' 꼭 봐야"

주한미군 사이에서 지난 2018년 7월–9월 한국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있다.

12일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소장은 자신의 계정에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되는 TV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도착 전 미스터션샤인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legally required)." 고 말했다. 특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며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Not quite legally required) 강력히 권장하는 것에 가깝다. 보게 되면 기쁠 것" 이라고 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신미양요(1871년) 당시 미 군함에 승선해 미국으로 떨어진 한국인이 미군 장교가 돼 조선에 주둔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조국으로 돌아온 유진 초이(이병헌 분)는 고애신(김태리 분)을 만나고, 항일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한다. 유진 초이를 돕는 미군 장교가 등장하기도 한다.

최종회 시청률 18.1%(유료가구)를 기록한 미스터 션샤인은 지난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어워즈에서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을 받았다.

1303호 숫자퍼즐 정답								
5	3	8	4	2	1	7	6	9
6	4	9	7	5	3	2	8	1
1	7	2	6	8	9	3	4	5
7	2	5	1	3	8	4	9	6
3	9	4	2	6	5	8	1	7
8	6	1	9	7	4	5	2	3
9	5	6	8	4	7	1	3	2
4	1	7	3	9	2	6	5	8
2	8	3	5	1	6	9	7	4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운(運)의 흐름에 따른 직업의 변화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필자에게 매년 찾아오는 P 선생님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자주 필자를 찾는다. 매번 상담을 하면서 필자가 P 선생에게 건넨 이야기는 이제는 직장운의 흐름이 거의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직장생활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개인 사업에 뜻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타고난 팔자를 활용해서 어느 특정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추천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필자가 추천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 분야와 자신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에 예전에 필자가 추천했던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하게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적지않은 큰돈을 투자해야 하고 막상 투자에 대한 용기가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예전에 필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투자를 망설이다가 다시 필자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본인이 타고난 팔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그 특징들의 대부분은 예전에 내가 추천했던 사업을 특히 잘 할 수 있는 팔자라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운(運)의 흐름도 재물운(財物運)을 돕는 흐름으로 들어서고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투자해도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필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원장님의 말씀을 믿고 투자를 밀어 붙이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는데 예전보다 안색이 훤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필자가 추천했던 사업을 직접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자신의 적성하고도 잘 맞고 사업도 생각보다는 운영이 잘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선생님이 타고난 팔자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도 하지만 운(運)의 흐름도 선생님의 사업운을 돕고 있는 흐름이라서 그래도 무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